



한국군 조기경보/ 전장감시체계 발전계획

吳香均 / 국방부 정보본부
육군 대령

북한 및 주변 4대강국을 포함한 안보환경 속에서 민감/민첩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중심위주의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제한된 전술정보 수집에 그치고 있어, 한국군의 정보수집 역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한 미군의 정보지원 의지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주한 미군이 자동 지원한다는 안이(安易)한 생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의 능력 범위내에서 정보 전력건설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전천후 감시능력의 확보와 정보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미군 조기경보 능력

- 정보수집체계
 - 한국군 : 신호, 영상, 인간정보 등 첩보수집 능력 미흡
 - 주한미군 : 첨단 과학장비에 의한 중심정보위주 수집
- 전파체계
 - 한국군 : 수발계통 등 타 전송수단 이용
 - 주한미군 : 정보전용 전파망 이용(實時間)

*自主 조기경보체제 건설방향

- 최적의 경제적 수집수단 확보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기반조성	전술 조기경보 능력 확보	전략 조기경보 능력 확충
비고	한·미 연합운용		독자 운용영역 확대

- 부대구조 발전
 - 정보기능별 운용부대 통합발전
 - 각군/기능 정보부대 구조 개선
- 전문인력 양성
 - 정보자산 건설/부대구조 개선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 자산확보 이전에 국내 교육기관/Package/대미협조
- 정보 자동화체제 구축
 - 실시간/근실시간 정보처리 전파 가능 C³I 사업 반영 추진
 - 영상전송체제 구축

*맺는 말

전략환경의 변천에 따라 미군철수/작전권 환원에 따른 대체 전력건설과 남북화해와 군축에 대비한 검증/감시수단 확보 요구 등 대남도발/주변국 전력증강에 대비한 자주 조기경보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